

언약 관계와 십자가

아세르 인트레이터

약 25년 전에 제가 **언약 관계**를 집필했을 때, 제 마음에는 대 계명과 지상대명령이 함께 있었습니다.

대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레 19:18, 신 6:5, 눅 10:27**).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마도 약간 더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따르는 문제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진 현실적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체계나 따라야 할 원칙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체계는 바로 언약입니다. 원칙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충성됨과 신실함입니다.

지상대명령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행 1:8), 전 세계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행 2:17), 그리고 창조 이래로 만물을 회복하는 것(행 3:21)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임무는 누군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도 큰 것입니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팀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팀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도 체계와 따르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체계가 바로 언약이고, 원칙은 충성됨과 신실함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어도, 충성됨과 신실함이 있어도 우리의 관계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최악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충성됨과 신실함 사이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고자 하는 대상은 모두 어딘가 신실함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 신실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 대상이 실제로 신실함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사실 사이에는 격차가 있습니다. 신실함이 부족한 대상을 향해 어떻게 충성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 계속 신실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또한 희생적인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실패할 때도 은혜를 베풀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 베푸는 은혜만이 그들의 실패로 인해 생기는 틈을 메울 수 있습니다.

언약적인 원칙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 원칙은 십자가를 지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아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을 때에도 예수아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해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적인 관계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부울 행사 요약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행 2:1)

지난 주말 저희는 연례 행사인 사부울 철야 예배와 기도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지역 공동체 신자들과 20여 개 국에서 모인 이들이 함께 예배실에 모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밤새도록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순간, 참석자들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 모국어로 기도했습니다. 열 개가 넘는 언어로 들려지는 중보기도는 주님 앞에 달콤한 향기같이 들려졌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기도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 경제학

아세르는 이 말씀에서 돈이 어떻게 유혹이 될 수도 있고,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어떻게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영어로 된 동영상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십시오!

모하메드, 노예제도, 십자군 전쟁

브리질 가브리엘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를 소유했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노예제도는 기독교 교리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예를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슬람은 다릅니다. 모하메드는 많은 노예를 갖고 있었고 첩들을 그의 용사들과 함께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구 국가들이 마침내 노예제도라는 악한 관행을 폐지했을 때도 아프리카의 노예무역은 끈질기게 계속되었습니다. 이슬람의 최대 성지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1960년대까지 노예제도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국가들이 무슬림 세계를 공격하고 잔혹한 행위를 한 침략 전쟁에 불과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는 조금 다릅니다. 십자군 전쟁은 실제로 지금의 북아프리카와 유럽 일부 지역의 기독교 영토들에 대한 이슬람 지하드의 침략, 강탈, 그리고 정복 행위가 있는 후에 시작된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에 의해 행해진 기독교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대량 학살이 있는 후, 교황 우르반 2세는, 자국민들이 무슬림 세력에 의해 공격당해온 비잔틴 황제의 요청에 응해, 마침내 동방 기독교인들을 도와 성지를 해방시키자는 소집나팔을 울렸습니다. 초기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지하드에 대한 방어전이었습니다.

자원봉사 기회

저희 가르침을 열방에 함께 나누기 위해 저희는 전 세계의 번역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훌륭한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였고 계속해서 미디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하다보니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세 가지인데요,

1) 매 주 나오는 저희 소식지를 여러분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일 (한 달에 하나). 번역자는 모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구사 능력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2) 웹사이트 번역하는 일

3) 여러분의 모국어로 웹사이트 업데이트하는 일

여러분이 컴퓨터 작업이 손쉽고 배우기 원하시면, 저희가 소식을 모국어로 어떻게 업로드하는지, 어떻게 수정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고 중국어 사이트가 준비되었고 작업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언어들도 곧 준비될 예정입니다.

도움을 주기 원하시면, 메일을 주십시오: anja@reviveisrael.org

기도 요청

이번 주말 미국에서 있을 [티쿤 아메리카 컨퍼런스 \(5월 29일-31일\)](#)에서 사역할 아세르, 베티, 그리고 일라나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